



주체강선

1

주제 106 (2017)
부제 제329호 월간

인민의 축원

그리움을 안고 절절하게 (♩=70)

mp B_m E₇ G F[#]₇ B_m B₇ E_m

1. 온 하루 먼 길 우에 찬-바람 맞으시-고
A₇ F[#]_m B_m E_m F[#]₇ B_m

이 밤도 사-색-을 이으시는 원수님
mf B_m B_{m/A} G E_{m6} C[#]₇ F[#]₇

자정이-자정이 넘었는데 언제 면쉬시렵니까 원수
G B₇ E_m B_m G C[#]₇ F[#]₇ B_m

님 원수님 이제는 삼태성도 기울었습-니다

2. 인민의 부럼없는 행복을 꽂피우시려
천만밤 쌓인 피로 잊으시는 원수님
먼동이 먼동이 터오는데 이밤도 지새십니까
원수님 원수님 창밖에 나무잎도 잠들었습니다

3. 조국의 부강위해 온넋을 불태우시며
찬란한 우리 미래 펼치시는 원수님
새날이 새날이 밝았는데 또 먼길 떠나십니까
원수님 원수님 노을도 소원안고 불타옵니다

원수님 한분만 믿고 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 안녕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작사 리지성
작곡 우정희

차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3
조국이 그리는 설계도	4
일화	
기념사진속의 제작소이름	8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수령님들의 명월	9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	10
인민의 충복답례	11
3대혁명의 기수들	12
우리의 앞날은 밝다	16
수필	
길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조선혁명군	18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 (1)	20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22
인민의 호평을 받는 제품으로	24
농민휴양소에서의 하루	26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의료봉사기지	28
민족의 향취넘치는 설명절	32
조국의 품에 안겨	
그가 걷는 길	34
고향소식	
대규모공업기지로 전변된 순천	36
편지	
54회인사를 보낸다	38





사화

《파랑새》	47
우리 민족의 고대글자-신지글자	48
개성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49
조국의 천연기념물 (1)	50



조선속담 (절박성)	35
상식	
늙은 바지 농민군	39
사6신과 생6신	40
식물성기름을 1년미상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50
유모아	
불만두값	48

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39
통일을 위한 애국의 해로 빛내입시라	41

수기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휘황합니다	42
전정	43
인상기	
장엄한 청년강국의 모습을 보았다	44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공장	44
민족의 향기	
온 거제가 힘을 합쳐 《영자!》	45
력사인물	
괴상좌와 《달밤에 소나무 밑을 거닐며》	46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주체106(2017)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인상깊은 지면들을 마련해온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새해를 맞고 있는 동포여러분에게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는 해외동포여러분이 새해에도 건강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아울러 가정들에 즐거움과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속에는 여러분의 낯익은 모습들과 정다운 그 이름들이 다시금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태양절, 광명성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들과 중요계기때마다 여러분은 축하단과 예술단 등을 끊고 조국을 찾았으며 많은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도 보내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 없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는 조국인민들과 결음도 마음도 함께 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조국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날파달들에 뜨겁게 어려있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새해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희망넘친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제런듯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국애, 민족애의 열렬한 의지를 안고 달려와 혁사적인 10. 4선언발표 9돐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설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에 참가하였던 재중동포들의 미더운 모습이...

그들은 판문각앞마당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결의모임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저주와 규탄을 안기였으며 통일축포가 오를 그날까지 민족의 대회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련대, 련합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가는것과 함께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존엄높고 궁지높은 사회주의 조국과 한피줄을 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장한 일을 많이 하여온 동포여러분의 투쟁과 생활의 갈피들을 정성을 담아 엮어가고있는 우리 편집부는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로 하여 나날이 여러분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숨을 쉬고 뜻을 같이하는 잡지를 편집발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도 건설하고 조국의 통일도 이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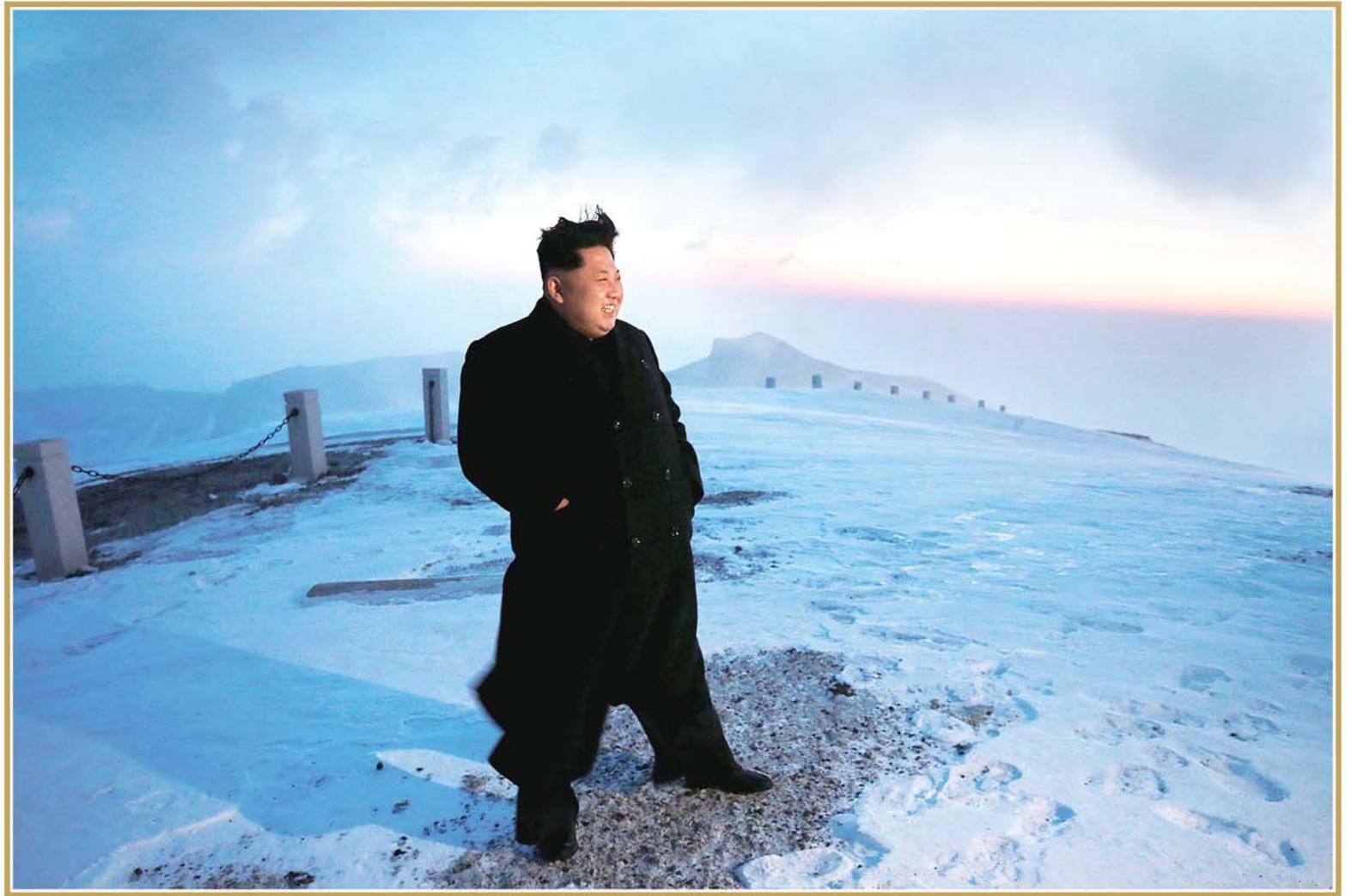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한사코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뭉친 힘이 있기에 민족의 힘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보다 휘황해질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고 새해에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수강산』편집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4월

조국이 그리는 설계도

새해가 밝아온다.

눈부신 혁명과 비약으로 수놓아온 주체 105(2016)년의 자축자축이 못 잊을 추억으로 새겨진 조국땅에 보다 큰 환희와 격정의 래일을 그려주며 새해 106(2017)년이 밝아오고 있다.

무릇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며 품은 희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마다 더 큰 행복이 깃들 래일을 꿈꾼다. 나아가서 새해에는 나라가 더욱 부흥해지고 그 전도가 더욱 휘황한 번영으로 엮어지기를 바란다.

세계를 둘러보면 불안정한 정치정세와 지속되는 경제침체, 그칠 새 없는 내란과 분쟁,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 피난민사태 등으로 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자기와 가정의 운명, 나라의 전도를 락관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좋아질 래일을 그려보며 환희에 넘쳐 있다.

지난 몇년동안에만도 인민이 바라는 희망과 꿈이 현실로 펼쳐진것이 얼마나 많은가. 평양의 대동강변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지식인들이

새 보금자리를 했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지향하는 조국의 기상을 파시하며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섰다. 조국의 바다에서 황금해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자기의 웅자를 드러냈으며 남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장천땅이 농장도시로 천지개벽되고 평양양로원이 일떠섰으며 나라의 곳곳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소년단야영소 등이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올랐다. 《금컵》과 《민들레》, 《대성산》 등의 상표가 새겨진 우리의 제품들이 인민들과 아이들의 생활령역에 확고한 애착을 가지고 자리잡았고 우리의 비행기, 우리의 지하전동차가 자강력의 무궁한 기세를 더욱 높이 떨치고 있으며 도처에서 희한한 선경들,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고 있다.

이룩한 승리도 가슴벅차지 만 안아올 승리 또한 눈부시

표로 제시하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한 구절을 다시 되새겨본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풍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고 우리 조국을 대대손손 부강번영하는 나라로, 그 어떤 대국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로 들끓는 여러 공장들과 건설장을 련이어 찾고 찾으시며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시고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평성합성가죽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다색화, 다양화된 세계적수준의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

승리의 축포오르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여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룽악 산비누공장건설장에 가시여서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품질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의 비누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높은 목표와 야심을 가지도록 신심도 안겨주신 원수님이시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비롯한 문명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여러 공장과 병원 등을 찾으시여서는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이르시였고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식료공장, 메기 공장들과 평양자라공장을 찾아주시고 농장에 가시여서는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부르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밀집형다수화강냉이품종의 이름을 《평옥9》호라고 달아주신 그이이시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만리 마시대를 열고 그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창조되도록 몸소 불꽃을 지펴주시여 조국땅에 만리마 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일도록 하시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참답게 꽂펴나고 세계를 앞서나아가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총진군, 총돌격전에 나섰다.

공장과 농장별, 과학연구기지와 건설장, 수천 척지하막장, 동서해의 어장 등 조국땅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으로 부글부글 끓는다. 온 나라 인민들의 지원열풍속에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16시간에 한층씩 단숨에 올려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한지 150일만에 70층초고층 살림집골조를 비롯한 모든 살림집골조를 일떠세워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크지 않은 경공업공장들이 손꼽히는 세멘트생산기지, 탄전들과 어깨나란히 만리마선 구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고있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주체철옹광로앞에서, 전기로앞에서 사회주의강국의 무쇠기둥을 세우는 심정으로 쇠물을 뽑고 설계가들은 도면마다에 조국의 더욱 황홀한 래일을 그려가고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은 련발적이고 다발적인 과학연구구성파들을 내놓아 과학기술강국의 래일을 앞당겨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호소에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불과 몇달사이에 해방후 처음보는 재난의 흔적들을 말끔히 밀어내고 라선땅에 이어 함북도 북부피해지구에 사회주의선경, 무릉도원을 일떠세웠다.

1년을 10년맞잡이로 달리는 만리마속도에 의



하여 행복과 문명, 번영의 원대한 구상과 대담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점령되고있는 조국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현대적인 악영소들을 비롯한 아이들의 궁전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천리마건재종합공장,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 땅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수개발의 완전 성공과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우리식으로 완성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보건산소 공장과 류경안파종합병원, 사과바다를 펼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선경, 집집승떼 흐르는 세포등판의 천지개벽…

창조와 혁신의 불길속에 솟구치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을 보며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아직 나라의 경제형편도 어렵고 무엇이나 부족도 하며 가야할 길도 멀다. 적대세력들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 번영하고 잘사

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사상최대의 제재와 고립압살의 광풍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그이께서 밝혀주신 설계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봉관에 넘쳐있는 인민이다.

지난해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김영녀동포는 『나의 조국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 한없는 친화력, 자애로운 미소는 그대로 조선의 미래이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를 조국의 미래를 본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이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이 실현될 때 만리마를 탄 조국은 세계를 디디고 더욱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며 인민의 앞길은 보다 더 휘황찬란해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태혁



기념사진속의 제작소이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 확장된 평양 자라공장을 찾으신 것은 굿은비 내리던 지난해 7월 5일이였다.

불과 1년동안에 희한하게 꾸려진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판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의 환한 미소에 굿은 날씨이지만 공장안팎이 다 환해지는것만 같아 동행한 일군들도 기뻐 어쩔 줄 몰라하였다.

공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개건형성안도 지도해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건만 오히려 건설자들과 과학자들의 수고부터 먼저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시울은 저도 모르게 달아올랐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 더없이 기뻐하신 곳은 무인먹이공급기가 있는 실내자라양식장이였다. 자라의 생육조건에 맞게 꾸려진 양식장안은 그저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습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대뜸 무인먹이공급기를 알아보시고 그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붉은 글자들이 큼직하게 새겨져있는 그 무인먹이공급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자들이 개발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현대적인 설비였다.

이윽고 무인먹이공급기가 동작하며 양식못들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였다.

마치 눈이라도 달린 듯 장애물까지 피해가며 자동적으로 먹이를 주는 모양을 보며 일군들이 탄성을 올리였다.

그 작업모습을 한참이나 세심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착상을 잘하였다. 하시면서 자신께서 지난해 자라양식에 필요 한 무인먹이공급기재를 창안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과학

자, 기술자들이 훌륭히 집행하였다고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거듭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거듭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가의 말씀을 받게 된 제작소일군은 그만 여기가 과학원이 아니라 자라공장이라는것도 감감 잊고 그이께서 몇해전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시였던 그때처럼 스스럼없이 마음속소원을 아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따뜻이 헤아려주시였다. 그러자 제작소일군은 너무 기뻐 어려움도 잊고 그이곁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이 기념사진을 찍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진을 찍을바에는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나올수 있게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전혀 뜻밖의 말씀에 제작소일군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높뛰였다. 그의 귀전에는 방금전의 그이의 사려깊은 음성이 다시금 울려왔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나올수 있게 찍읍시다!

감격에 목이 멘 제작소일군의 눈앞에는 제작소의 이름에 담겨진 하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사랑과 정을 담아 자주 외우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음을 담아 불려주신 제작소의 이름, 이 고귀한 이름을 평양자라공장의 현대화에서도 빛내이자고 모두가 떨쳐나 만들어낸 무인먹이공급기였으며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을 한껏 실고 제작소이름을 새기던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이렇게 되여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라는 글자가 뚜렷이 보이는 무인먹이공급기를 가운데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작소일군과 함께 찍으신 이채로운 기념사진이 역사에 남게 되였다.

* * *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수령님들의 냄원

오늘 짧음으로 약동하는 조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냄원이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생을 그리도 마음을 써오시였던 것이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첫 시기부터 조국을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해방후 건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조국땅에는 인민의 뭉친 힘 노도도 내밀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장엄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주체의 가치높이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영웅조선으로, 빙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억센 나래를 펼친 천리마조선으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사회주의강국의 참다운 면모와 그 건설을 위한 과학적인 로선과 원칙,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오늘은 강력한 당과 정권, 튼튼한 군사경제적기반을 가지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이어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수령중심의 조국관을 천명하시고 공화국을 수령님의 사상만이 꽉 차넘치는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공화국을 반제투쟁의 강경보루,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키시였다.

조국이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단연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신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격로

가 열려지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질 수 있게 되였다.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루하시고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기에 오늘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인민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파업적을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나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로선, 자강력제일주의를 비롯한 사상파로선, 정책들을 제시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오늘 조국이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자주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는 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조국의 현실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설 날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

오늘 조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용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천만군민이 출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그 목표들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혁사적단계, 사회주의기초를 다지고 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3대혁명을 통하여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책

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자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혁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우선 과학기술강국건설이 선착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이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나가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경제강국건설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립성,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적로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

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며 그것을 인민생활향상에로 지향시켜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문제가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목표이며 이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파업과 방도들이 각 공업부문들과 해당 단위들에 주어져있다.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것이 문명강국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는것과 함께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고 도덕기강을 세우며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는 문제를 내세우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데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사회주의 국가정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인민의 충복답게

우리 조국에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얼마전 구역일군들을 만나보려던 우리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날수 없었다. 한것은 이곳 일군들모두가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날도 그들은 구역인민들의 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수도화공사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장에 나가 있었다. 수도화공사는 이미 있던 상수도관을 새로 교체하고 물탕크시설을 확장하며 여러개의 뽑프장을 현대화하는 매우 어렵고도 방대하였지만 공사는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구역인민위원회위원장 조희래는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늘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된 애국자, 인민의 충복이 될 것

현실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고있는 일군들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선군혁명로선을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키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온 사회에 군사증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나가는것이다.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은 그 누구도 막지 못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림칠

데 참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학교들에 나간 일군들은 인홍초급중학교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외내부와 교육설비들을 현대화하는 한편 성북소학교와 장현소학교, 전승소학교 등을 신축 및 증설, 개건하는 공사도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로 여기며 내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탁아소, 병원 등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바쁜 속에서도 그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좋은 집과 함께 가정용품들을 마련해 주기 위한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자주 가정방문을 하여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지내도록 따뜻이 돌봐주고 명절날이나 기념일때에는 그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부모없는 젊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부모없는 한 청년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 일군들은 그의 친아버지가 되어 구역에서 소문난 로력혁신자 처녀와 새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었으며 또 언제인가는 부모없는 자매의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어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구역인민위원회일군 한명호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의도를 따르자면 자기들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 잘 수행해 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전쟁로병의 가정을 찾은 일군들



3대혁명의 기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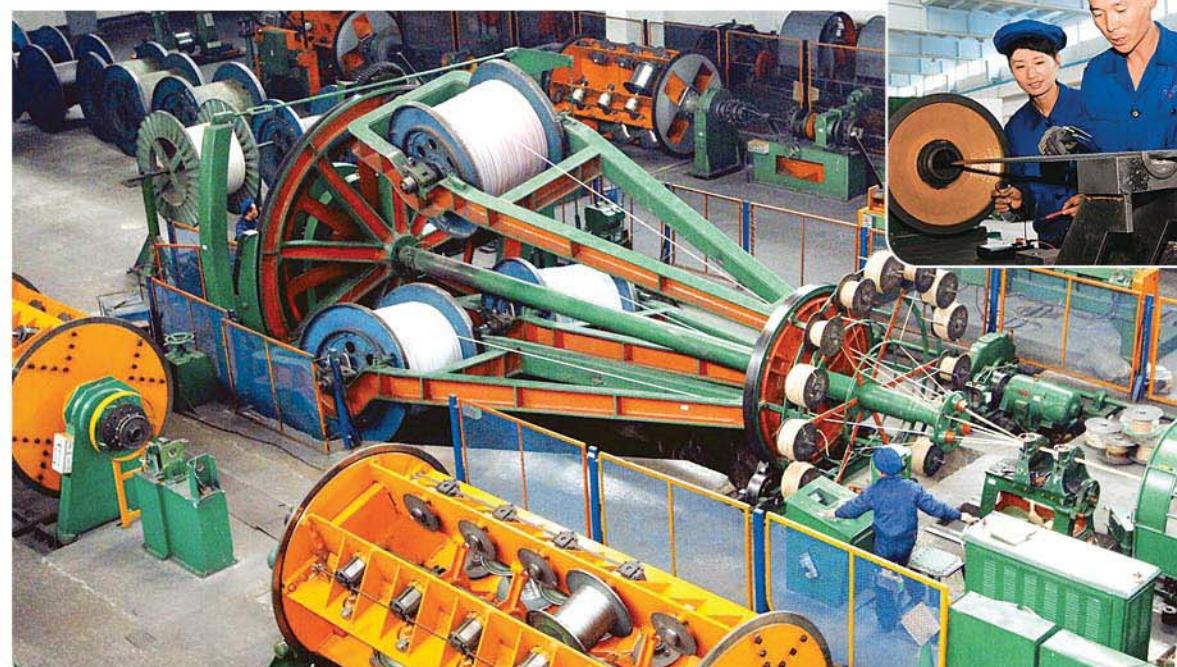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고

지난해 평양326전선공장의 부흥원에서는 류다른 결혼식이 있었다.

케블직장 완성작업반의 손꼽히는 혁신자인 신랑 리순일과 통신작업반에서 한별기 꽃으로 사랑 받고 있는 신부 송은정이 온 공장종업원들의 축복 속에 새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케블직장 직장장 문명철을 비롯한 공장과 직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량부모를 잃은 리순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주었고 흘어머니를 모시고



기술혁신에 힘을 넣어

사는 송은정의 아버지가 되여 새 살림집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갖추어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갈무렵 신랑신부는 목메인 소리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절절히 불렀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부르는 그들의 노래는 케블직장 로동자들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케블직장이 공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직장으로 된데는 종업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되어 서로 돋고 이끌면서 직장을 화목한 집단으로 꾸려나가고있을뿐아니라 생산에서도 설비현대화사업에서도 그리고 체육활동과 군중문화예술사업에서도 언제나 앞장서고있기때문이다.

케블직장의 그 어느곳에 가보아도 깨끗한 로동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어있는것을 느낄수 있으며 힘있는 직관선전물들과 대중을 혁신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주는 속보판들을 볼수 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모든 기대들을 눈동자와 같이 다루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생산적앙양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지난해 200일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7월말 케블직장은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년간인민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도 언제나
공장의 앞장에 서있다.

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설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비약시켜온데 있었다.

직장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직장의 기대공들이 힘을 합쳐 3000t연피프레스와 150mm대형수지압출기를 PLC화함으로써 설비들을 컴퓨터로 조종할수 있게 하였으며 지난해 4월 말에 첫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놓으니 생산능률은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다.

유승철, 장태성, 송혁철, 리순일, 주옥경을 비롯한 청년들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사는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여러 대학들의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였으며 하루일을 마치면 원격강의실에서 배움의 꿈을 실현해나가고있다.

해마다 공장적으로 진행되는 창의고안, 기술혁신경기에서 이 직장의 수리공들인 차영철, 정철삼이 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케블직장의 자랑은 이뿐만이 아니다.

로동자부부인 김형남, 리정심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로동자부류에서 당선되어 전국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푸른 인조잔디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매일과 같이 진행되는 직장별 축구, 배구, 롱구경기들에서도 케블직장이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고수하고있다.

공장의 케블직장은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인 단위들에 수여하는 칭호),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데 이어 10여년 전에 벌써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대동강변의 새 모습 주체 105(2016)년 8월 촬영 본사기자 최원칠

우리의 앞날은 밝다

사람들은 누구나 청춘시절을 가리켜 인생의 봄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 나는 청춘시절을 인생의 영웅시절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춘과 영웅,

청춘과 영웅이라는 부름처럼 잘 어울리는 말을 나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

이렇게 불리우는 청년만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살수 있을뿐 아니라 먼 후날 나도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노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에 뜻뜻이 설 권리를 가졌다고 자부할수 있다.

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차에로운 모습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 열로 가슴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m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과 믿음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청춘의 슬기

와 지혜를 바쳐 애국의 창조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최상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깊이 간직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은 북방의 강주위를 이겨내며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백두대지에 영웅청년신화를 새기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이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 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평범한 처녀들이 우리 나라의 첫 여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로, 하늘의 꽃으로 억세계 피여났고 김정숙령양재사공장과 김정숙령양방직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의 청년들이 지난 해 200일전투기간에 5년분, 4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떨치였으며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청년》호의 어로 공청년들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왔고 전국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에 140여개의 청년직장, 청년작업반들이 조직되어 생산에서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지역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만명의 청년들을 망라한 550여개의 청년돌격대가 조직되어 파괴된 수백여km의 도로와 철길, 30여개의 다리를 복구하고 수천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밀었으며 청년과학자들은 600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 및 도입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게 결의다진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서일



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진다는것을 실체험을 통하여 진리로 체득하였다.

력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조국의 청년들처럼 장장 70여년세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따라 충정의 한길만을 곧바로 달려온 그런 청년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엔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그이께로만 끌없이 달리고 있다.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끌까지 받아들이나가는 청춘들의 불라는 애국충정,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성번영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자랑 떨치고있기에 우리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새해의 이 아침 우리에게 밝은 래일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청년들의 다함없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진다.

이 나날 우리는 청년들이 들끓

인간이 한생을 바쳐 력사에 남기게 되는 생의 흔적은 그가 걷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며칠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던 나는 자그마한 사립문앞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고향집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수수한 초가집이였고 사립문이였다.

바로 그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에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위대한 길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나의 가슴속에는 중엄해지는 감정과 함께 그이께서 걸어오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천만리길이 뜨겁게 안겨왔고 사연도 많은 광복의 천리길에로 생각은 이어져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것은 주체 14(1925)년 1월이였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시였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아버지의 원쑤,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깊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시며 떠날 차비를 하시였고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였다.

압록강을 건 느시기 전에 그이께서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

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신 그날로부터 시련의 광풍을 한몸에 받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해치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였는가.

그것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행길이였다.

『ㄷ. ㄷ』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로써 해쳐가신 항일무장투쟁은 말파글로씨는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수필



시련의 혈전만리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겨레에 대한 끌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분연히 일어서신 천교령의 눈보라길과 끈질기게 달라붙는 적

들의 추격과 포위, 굶주림과 혹한을 뚫고 해치신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길도 광복의 천리길의 련속이였다.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신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어지시고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또다시 준엄한 난국을 해쳐가시였으니 정녕 그 길은 번영하는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는 부강조국건설의 길이였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해방후 가보셔야 할 곳도 많

고 만나보셔야 할 사람들도 많으셨지만 그보다 먼저 약소민족의 설음을 영원히 가시기 위하여 자위적국방공업창설의 길을 걸으시였고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제강소(당시)부터 먼저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그 거룩한 걸음으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같은 인간사랑의 조치로 인류전쟁사를 놀래우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던가.

인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온 심장을 불태우셨기에 그이께서는 그 길에서 언제 한번 자신을 위한 걸음을 내짚어 본적이 없으시였다.

정녕 그이께서 걸으신 그 길은 주체의 신념과 불타는 애국심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길이였고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이민위천의 길이였으며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멸치는 나라를 일떠세우신 부강조국건설의 길이였다.

바로 그 길이 있어 우리 조국과 인민은 번영의 길, 행복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따라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있는것 아니랴.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위대한 승리의 길에 담겨진 숭고한 세계를 감회깊이 더듬어보며 나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빛내여 갈 불타는 맹세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엄향식



조선혁명군

카륜회의에서 중요한 파업의 하나로 내세운 당조직건설사업은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결성으로 제일보를 내디디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우리앞에는 무장투쟁준비를 다그쳐야 할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었다.

우리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다.

우리가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것을 예전하면서도 조선혁명군과 같은 파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온것은 그 군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의 유격부대를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해두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였다.

사실 우리한테는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땅토에서 무장투쟁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그에 상응한 경험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만 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우리에게 밀천이 있다면 독립군출신의 몇몇 동무들과 화성의숙을 다닌 얼마간의 동무

들이 있고 몇자루의 권총이 있을뿐이였다. 그 나머지는 백지상태였다. 무기도 우리 손으로 획득하고 군사적경험도 우리 스스로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파도적조직으로 내온것이 바로 조선혁명군이였다.

고유수에서 처음에는 김원우, 리종락이 혁명군결성을 준비했고 후에는 차광수가 파견되어 그 준비를 완료하였다.

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준비사업의 기본은 혁명군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는 일과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독립군들파의 사업을 잘하여 선진사상에 동조하는 똑똑한 군인들을 돌려세워 사람이나 무기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도로 내세웠다. 혁명군에 군인출신이 많으면 그들이 모체가 되여 군사지식이 없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훈련시킬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국민부산하에 있는 독립군파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우리의 방침은 독립군중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군인들을 교양하여 우리 진영으로 돌려세우며 사상적준비정도에 따라 혁명군에도 받아들이자는것이였다.

국민부는 이 시기에 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나뉘어 권력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국민부파는 재만조선인통수권을 쥐였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였다. 이 조치는 결국 민중파 군대를 분렬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1930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두파의 대립은 서로 상대편 간부들을 암살하는 테로전으로 번져져갔으며 이 테로전을 절정으로 하여 두파의 세력은 완전한 결렬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이였기때문에 독립군내에서는 대원들뿐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까지도 상충부를 불신하였고 상충이 주는 지시를 잘 받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차광수는 통화, 휘남, 판서 일대에서 독립군파의 사업을 하였으며 리종락은 고유수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대원들을 교양하여 혁명군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

리종락은 원래 고유수에서 정의부소속의 독립군 1중대에 있다가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할 때 《ㄷ.ㄷ》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화성의숙에 추천되어온 1중대출신의 학생들 가운데는 박차석, 박근원, 박병화, 리순호를 비롯하여 여러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리종락은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고유수에 있는 자기 출신 중대로 돌아가 부중대장을 거쳐 중대장이 되였다. 지금파는 달리 군력이 얼마 되지 않던 당시에는 중대가 큰 군사력량이였다. 만주에서 세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던 국민부도 산하에 겨우 아홉개의 중대를 두고 있을뿐이였다. 그러므로 중대장이라면 자연히 독립군들속에서 큰 인물로 떠받들리기 마련이였다. 고유수에서 리종락의 위신이 대단했다.

김혁, 차광수, 박소심동무들이 1928년부터 1929년사이에 류하지방에서 최창결의 영향하에 있는 독립군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활동을 활발히 전개한것처럼 고유수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도 리종락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였다.

리종락은 그때까지만 해도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의가 대단히 높았다. 그는 화성의숙이 폐교된 후 출신중대에 돌아가 우리가 화전에서 준 파업대로 독립군대원들파의 사업을 잘하였다. 대담한것, 결단성이 있는것, 판단력이 빠른것, 통솔력이 강한것, 이런 자질이 그의 우점이였다.

그대신 그에게는 랭철한 리성과 사고력이 부족하였다. 기분주의가 많고 과격하였으며 개인영웅심이 농후하였다. 이것이 후날 그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한 중요한 병집이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지휘체계도 정연하지 못하고 또

그 내부가 뒤죽박죽인데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대들을 무장해제시켜 가지고 국민부반동들을 숙청하자고 하였으며 독립군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무장도 얻고 국민부와도 대결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독립군파의 사업에서 좌경적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형권삼촌도 두개의 공작조를 편성해가지고 장백지구에 나갔다. 삼촌은 지양개뒤산에 근거지를 정하고 장백의 여러 지역에 백산청년동맹지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여 무기공작과 의식화활동을 하였으며 지방청년들을 흡수하여 군사훈련도 주었다. 형권삼촌의 노력으로 장백지구에 있는 독립군력량이 우리의 영향하에 들어오게 되였다.

대원들을 선발하고 그 후비를 마련하는 사업과 함께 무기를 얻기 위한 공작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무기를 해결하는데서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최효일이였다. 최효일은 철령에 있는 일본인무기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였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만주에서 총장사를 많이 하였다. 그들은 총을 비적들에게도 팔고 중국인자주들에게도 팔았다. 최효일은 소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이였지만 일본말을 아주 잘하였다. 그가 일어로 대화할 때면 조선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分辨할수 없을 정도로 류창하였

다. 최효일이 점원으로서는 아깝다고 할만큼 명석하고 일본말도 잘하였기때문에 상점주인은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최효일을 제일먼저 쟁취한 사람은 장소봉이였다. 장소봉은 카륜을 개척할 때 장춘, 철령, 공주령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우연히 최효일을 알게 되였다. 몇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대가 성실하고 대바른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최효일을 반제청년동맹에 흡수하고 그를 리종락에게 소개해주었다. 이때로부터 최효일은 철령에서 적후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는 리종락과 련계를 가지고 독립군중대들에 무기를 살금살금 팔아주었다. 상점주인은 최효일의 손을 거쳐 판매되는 무기가 조선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것을 알면서도 매상고를 높이는데만 굽굽하여 그런것은 아는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최효일은 무기를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팔아주다가 다음에는 독립군한테 넘겨주었으며 나중에는 철령의 일본인상점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조달해주는 전용상점처럼 만들어버리였다. 그 과정에 그의 세계관도 몰라보게 발전하였다.

리종락과 장소봉은 나를 만날 때마다 철령에서 멋있는 청년을 한명 흡수하였다고 하면서 최효일의 자랑을 하였다. 그래서 나도 최효일에게 은근히 큰 기대를 품게 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1)

지난해(2016년) 조국에서는 도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가 편집발행되었다.

모두 8개 장으로 되어있는 책은 중국공산당이 광활한 동북대지를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국제주의적 모범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펼쳐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퍼흘리며 영웅하게 싸운 수많은 조선의 혁명렬사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준다.

국제주의적이무로 여기시고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중

국땅에서는 장개석이 미제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내전쟁을 일으키였다.

당시 일제의 패망후 장개석 군대는 미제의 60억 US\$의 군사적 《원조》와 패망한 일제침략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와 군수물자, 철도, 항만 그리고 큰 도시들과 중요한 군사전략 상요충지들을 차지하고 일제의 특무망까지도 넘겨받아 430만 대군으로 늘어나고 중국 전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주민지역을 차지하였지만 중국공산당은 장강이북 농촌지역들의 해방지구, 중국인구의 30%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과 보병 그것도 무장장비수준이 좋지 못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쏘련(당시)은 얄마협정의 준수와 제2차 세계대전시

기 협정국이었던 중화민국과의 관계도 있어 중국공산당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동북지방의 엄중한 정세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공산당의 위업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시였다.

중국혁명을 조선혁명처럼 생각하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쏘련(당시) 하바롭스크 북야영에서 중국 동북정세에 대처하여 중국혁명을 도와줄데 대

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나가 활동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이 동북지방에 나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중국혁명의 승리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에도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이 동북지방에 가서 해야 할 사업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신 수령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동무들을 다 데리고 조국땅에 나가 그리운 혈육들도 만나게 하고 새 조국건설에 참가시키고 싶지만 동북정세가 혐악해서 동무들을 또 싸움터로 보내는데 몸들을 조심하여 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하여 그곳에 집결되어 훈련을 진행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이 해방된 조국으로 가 아니라 또다시 싸움터인 중국 동북지방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최용건을 비롯한 일부 지휘성원들이 첫 파견원으로 현지로 출발하였고 이어 강건을 책임자로 하여 김만익, 박경숙, 박락권, 최광, 김양춘, 오죽순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이 연길과 화룡, 왕청과 명월구 등 동북지방

에 파견되었다. 그들과 함께 지난 시기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지에 있는 항일투사들과 중국 판내에서 동북으로 들어오는 무장대원들도 여기에 망라되었다.

승리의 열쇠-혁명근거지 마련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이 중국 동북지구에 꾸린 근거지는 동북해방전쟁 전기간 대단히 큰 은을 냈다.

연변지구는 동쪽으로는 쏘련(당시)의 연해주 하싼지구와 잇닿아 있고 남쪽은 두만강을 사이 두고 우리 나라 함경북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은 중국 길림성의 교하, 화전, 무송현들과 접하고 북쪽은 중국 흑룡강성의 동녕, 넝안, 해림, 오상현들과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변지구를 근거지로 꾸릴 결심을 하신 것은 이 지구에서 살아온 조선민족이 일찍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으며 그이께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자 왕청, 연길, 화룡, 훈춘 등 동만의 여러 지역에서 항일무장대오들이 꾸려지고 뒤이어 동북땅이 항일의 불도가니로 전변되었다는 점이였다.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군대를 조직하여야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각지에서 무장대를 조직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길동보안사령부(후에 길동분구사령부로 명칭을 고쳤다.)를 조직함으로써 연변근거지를 믿음직하게 보위 할 수 있는 무장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1945년 9월에 조직될 당시 길동보안사령부는 그 산하에 야전군과 보안대를 두었으며 야전군에는 1련대(연길), 2련대(왕청), 군정대학이 속해 있었고 보안대에는 1련대(연길), 2련대(조양천), 3련대(왕청), 4련대(화룡), 5련대(훈춘), 6련대(돈화), 7련대(룡정, 중국인부대), 8련대(화룡, 중국인부대), 철도보안대, 안도보안대, 도문보안대대가 속해 있었다.

부대규모를 보면 야전군은 8 000명, 보안련대는 1만 6 000명정도였으며 포병 및 보안대대는 3 000명, 군정간부학교 학생은 1 000명정도였다.

길동분구사령부에는 기본부대 외에도 폭약제조소, 무기수리소를 비롯한 군수공장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자동차를 개조하여 장갑차도 만들고 일본제 땅크도 수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은 무장대를 강화발전시키면서 그에 요구되는 군사정치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1946년 1월초 연길에 길동군정대학을 창설하였다. 이 대학은 연변지구만이 아니라 길동지구 청년군정간부들을 양성하는 군사정치교육기관이였는데 대학교장은 강건이 겸임하였다. 군정대학에서는 한기에 500명정도의 우수한 조중인민의 아들딸들을 받아들여 교육을 하였다. 후에는 독립군정대학 길림분교로 이름을 바꾸고 동북해방전쟁 전기간에 3 700여명의 군정간부들을 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조선 사람이 2 520명이였다.

정규적인 무장대와 함께 도

처에 지역별, 조직별로 되는 여러 가지 명칭의 반군사조직들이 조직되었다. 연변지구에 강력한 무장대오가 결성되자 다른 지구에서도 무장대조직이 활발히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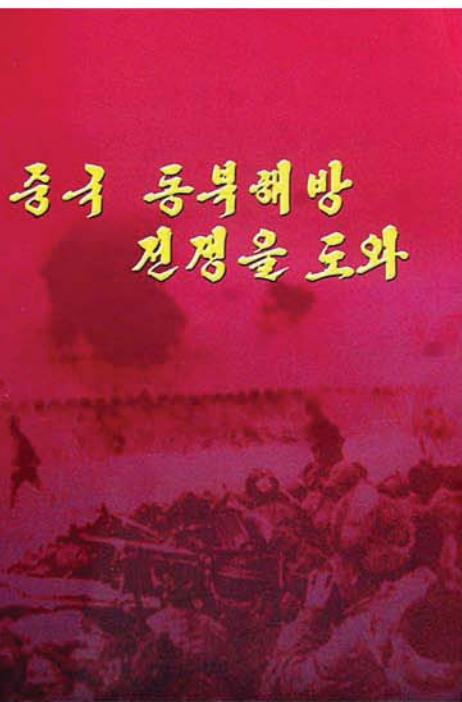
무장대를 조직하는 사업과 함께 당파 인민정권기관, 대중단체를 조직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졌다.

먼저 연변에서 연변당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연변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정무위원회와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근거지를 꾸리기 위해 토지개혁도 1, 2단계로 진행하고 철도, 공장, 기업소, 은행, 체신 등을 장악하였으며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1949년에 연길시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수민족 종합대학인 연변대학을 창립하였다.

이렇게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면서 인신매매와 기생축첩제도를 철저히 없애버리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다. 그속에서 연변지구는 더욱 혁명화되어갔고 연변근거지가 더욱더 굳건히 다져졌다.

이 나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6(1947)년 2월 16일 중국 목단강지구 조선인민주련맹대 표위문단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동북지방의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필로 써주시고 목단강동포자녀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 등 많은 물자를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 * *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우리는 얼마전 예로부터 경치아름답고 물이 좋아 장수들이 많이 나는 통약산지구에 있는 통약산샘물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유명한 통약산샘물이 생산되고 있다. 통약산샘물은 땅속 수십m 깊이에서 솟아오르는것으로서 물맛이 아주 좋고 여러가지 광물질과 주요 이온들이 리상적으로 함유되어 있을뿐아니라 세계의 이름있는 샘물들에 없는 이온들까지 포함되어있어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듯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종업원

들이 분발하여 일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 김동숙은 말하였다.

《최근 공장은 생산공정들에 대한 신축 및 증설, 개건 공사를 끝냄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생산을 2배로 늘어였다. 지금 많은 샘물이 생산되어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대단히 좋아 하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우리는 그 감사의 편지들이 수도시민들에게 맛좋은 샘물을 공급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분들의 위엄을 이어받으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

대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겠는가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장을 돌아보았다.

공장에서는 먹는물을 생산하는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렸으며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생산지휘와 제품관리, 작업현장의 위생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도 구축하여놓았다. 샘물생산공정의 설비들을 보충하고 능력이 대단히 큰 용기생산공정을 새

로 꾸림으로써 용기 공급으로부터 세척, 주입, 검사, 출하 공정에 이르기 까지 모두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된 생산공정들에서는 각종 용기에 담겨진 샘물이 쉬임없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참으로 볼만하였다.

기대공 리은옥은 말하였다.

《지난해 9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샘물을 보시며 공장을 개건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샘물을 더 풍



족하게 공급해줄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정말 그때 우리들은 인민을 위해 멀사복무해가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슴뜨

겁게 느꼈고 그이를 받들어 맡겨진 임무수행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인민의 호평을 받는 제품으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공장은 조국의 곳곳마다에 꾸려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안겨줄 의의있는 기념품들과 여리가지 일용품들을 생산보장하는 인민소비품생산기지이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 한경일은 말하였다.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들의 발전을 중시하는 나라의 관심속에 최근 우리 공장은 어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생산건물도 일신되고 설비의 현대화가 실현되는 속에 새롭게 샤크생산공정과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이 더 갖추어져 공장의 물질적토대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샤크생산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생산현장에서는 샤크생산의 첫 공정으로부터 제품완성, 검

사,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이 흐름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형태와 색갈이 다른 수지샤크, 금속샤크들이 쉬임없이 쏟아지



고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작업반장 김광국은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년간 천수백만m에 달하는 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산된 샤크가 수입샤크에 비해 질이 높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방금 생산된 샤크의 질을 검사해보니 파연 그려하였다.

그에 대해 제작공 김정애는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가 샤크의 질문제이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에서 샤크의 질을 가늠해보시였고 검사실에 들리시여서도 샤크의 질검



사를 컴퓨터화면으로 관찰하시며 과학적으로 질이 담보된 훌륭한 샤크를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샤크의 장식고리도 다양하게 만들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샤크 하나를 놓고서도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멜라민수지제품생산현장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는 보기에도 그리고

쓰기에도 좋은 멜라민수지제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밥그릇, 국그릇, 쟁반, 조롱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품들의 질적수준이 높았다.

이곳 생산자들 역시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멜라민수지제품생산능력과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었다.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내놓는가 하면 새라새로운 제품도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태들을 창안제작하는 사업을 대중

적운동으로 벌리고있었다.

공장일군 김재완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관심속에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갖춘데 맞게 앞으로도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고 그들이 호평하고 인정하는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벌리겠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농민휴양소에서의 하루

태천농민휴양소에서 겨울철 농민휴양이 시작되었다. 휴양생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휴양소는 태천4호청년발전소 저수지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저수지기슭의 휴식터외랑과 정각, 배구장이 있는 넓다란 운동장을 앞에 두고 서있는 휴양소에 우리가 도착하자 휴양생들을 태운 빼스가 뒤따라 마당에 들어서는것이었다. 빼스에서 휴양생들이 내리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고 손에는 등산도구같은것이 쥐여져 있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에게 휴양소 소장 리경애는 휴양생들이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묘향산등산까지 하고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휴양기간은 보름정도인데 그 기간에 주변에 있는 여러 사적지들과 묘향산, 통문대굴 등 명승지들을 참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참관일정에 따라 이렇게 묘향산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래일은 통문대굴로 가자고 야단입니다.》

그리면서 그는 우리를 휴양소 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침실과 식당, 레발실, 미용실, 의무실, 도서열람실, 종합오락홀, 체육운동실 등이 구색이 맞게 배치되어있는 휴양소를 돌아보았다. 알고보니 태천농민휴양소는 군이 아니라 평안북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한 농업근로자들이 이곳으로 오는데 한기에 50명정도의 휴양생들

을 받는다는 리경애소장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1층의 어느 한 호실에 들어섰다. 거기에는 태천군 취홍협동농장에서 온 오금녀와 덕홍협동농장에서 온 선우금숙이 있었다.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자 그들은 저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휴양소를 이렇게 훌륭히 지어놓고 아무런 불편이 없이 생활하도록 해주니 정말 좋다고,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정신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 말의 참뜻을 여기에 와서 절감하게 되었다고, 우리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생일을 맞았는데 휴양소가 차려준 생일상과 휴양생들의 성의를 정말이지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이었다.

그들파의 이야기속에 얼마간 시간을 지체한 우리는 1층에 있는 다른 호실들에서도 행복에 넘친 휴양생들의 모습을 보며 2층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거기에는 종합오락홀, 의무실, 도서열

람실 등이 있었다.

우리가 도서열람실에 들어서니 열람실안에서는 휴양생들이 서로 한해농사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큰모재배경험이며 물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그 우월성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휴양소가 그저 휴양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농사경험을 교환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뒤에 두고 3층으로 올라가니 거기에서는 탁구경기를 하느라고 법석 끊고있었다. 여리개의 탁구판을 마주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탁구를 치는 휴양생들의 모습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체육열풍을 그대로 느끼게 하였다.

그러는 우리에게 자기팀을 응원하던 한 휴양생이 자기는 운홍협동농장에서 온 김영호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탁구경기가, 저 운동장에서는 배구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저수지기슭의 휴식터외랑에서는 낚시질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쁨에 넘쳐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밝은 모습에는 휴양생들에게 나라의 은덕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숨배여있습니다.》

휴양소에서 보낸 하루, 이 하루에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을 위하여 바쳐지는 나라의 크나

큰 은정과 그에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는것으로 보답하여는 농업근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유신화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의료봉사기지

평양의 문수지구에 또 하나의 의료봉사기지 류경안과종합병원이 특색있게 일떠섰다.

치료를 시작한지 여러달이 흘렀으나 병원으로는 환자들만

이 아니라 참관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들어서면서 마주보이는 외래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입원실

병동 외벽에는 시력검사표까지 불인 병원은 척 보기만 하여도 안파종합병원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병원마당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1동 14인민반에서 사는 리용순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앓고있던 백내장을 고친 기쁨을 한껏 안은 할머니는 치료설비는 물론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 하루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음속에 말하는것이였다.

그와 헤여져 병원에 들어선 우리는 부원 김은애와 함께 병원을 돌아보았다. 1층의 한쪽에는 구급파와 약내주는곳, 접수와 대기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남자안경, 여자안경, 어린이안경을 비롯한 갖가지 안경들과 부속품들, 광학기재들과 시력검사실, 교정실, 가공실이 있는 안경상점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2층에 있는 백내장파, 소아안파, 록내장파, 눈압, 시야검사실, 눈초음파검사실 그리고 안저검사실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중이였는데 치료설비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첨단설비들이였다.

치료설비는 물론 병원에 구비된 일체 시설과 비품 그리고 병원자체가 일떠서는데 깃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함없는 인민사랑과 크나큰 은정에 대한 김은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망막파입원실과 소아안파입원실 등이 있는 3층으로부터 8층까지의 입원실들도 돌아보았다. 거기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옥상의 정원에서 산보도 하고 있었고 어린 환자들은 어린이놀이실에서 글자와 수자맞추기도 하고 그네도 타면서 즐겁게 놀고있었다. 놀이실에서 우리와

만난 모란봉구역 장현소학교의 리복성(8살)학생은 자기는 가성근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렇게 놀이실까지 있어 집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좋아하였다.

참으로 류경안파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이였다.

우리와 만난 병원제1부원장류은희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우리 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그리
도 기뻐하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책임성과 실무적 자
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봉사 활
동을 잘해 나감으로써 무상치료
제가 실시되는 우리 나라 사회
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
게 파시해나가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설명절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민족의 향취넘치는 설명절



설명절 하면 의례히 연떡우기와 줄넘기,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썰매타기를 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 조국인민들이다.

저 하늘가로 끝없이 날아오르는 연을 바라보며 거기에 자기의 희망을 담기도 하고 신나게 팽이를 치고 썰매를 타고 또 제기차기와 줄넘기를 하면서 온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마음껏 웃고 떠드는 조국의 학생소년들이다.

겨울바람이 맵짜도 온 나라 도시들의 광장들과 운동장들에서 터져나오는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그들과 함께 마음껏 동심세계에 빠지고 싶은 생각마저 불러일으킨다.

밖에서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가 한창일 때 가정과 이웃들도 장기와 윷놀이로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

어느 가정에 찾아가보아도 한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장기판을 펼쳐놓고 《장훈이야!》 하며 온 집안을 들었다놓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이 《쏭!》, 《모!》 하며 윷놀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인민반의 이웃들사이에 진행되는 장기나 윷놀이경기 또한 떠들썩하다. 서로 돋고 이끌며 인민반을 꾸릴 때는 온 동네가 부려워할 정도였지만 설명절날에 진행하는 장기와 윷놀이 경기때에는 서로 조금의 양보도 모르는 이웃들이다.

그래도 민족체육경기하면 태권도나 씨름도 그렇지만 인기있는것중의 하나가 바줄당기기

라 아니할수 없다.

바줄당기기가 조선사람들의 감정과 체질에 잘 맞으면서도 집단적위력을 과시할수 있게 하는 참으로 훌륭한 민족체육종목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설명절전야부터 이어오던 바줄당기기대항경기가 설명절당일날에는 결승경기로 이어져 온 기업소, 온 공장, 온 농장, 온 마을이 떨쳐나서는지도 모른다. 바줄을 당기는 선수만이 힘과 열이 뺏치는것이 아니라 응원자들마저 용기가 솟구쳐올라 목청을 둇군다.

정녕 설명절에는 아무리 보아도 민족적 향취가 질다.

놀이를 해도 체육을
해도 지어 음식을 만들
어 먹어도…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방은십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① 윷놀이, ② 연떡우기,
③ 바줄당기기, ④ 단심줄, ⑤ 제기차기)

그가 걷는 길



강순영

얼마전 룽라합영회사산하 룽라빵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한 사무실벽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거기에는 지난 기간 공장의 제품들이 전국적인 제품심사등록에서 높이 평가되어 받은 증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안내 하던 공장책임자 김명애는 말하였다.

『저 증서들은 공장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애국은 실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저 증서들에는 우리 회사사장 강순영의 지혜와 노력이 크게깃들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는 공장에 나와 있는 강순영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가 룽라합영회사 사장으로 임명 받은 것은 주체98(2009)년 이였다고 한다.

당시 그의 심중은 무거웠다. 이미 전부터 남편(최행웅)과 함께 해오던 회사의 일이였지만 막상 중임을 맡고보니 생각이 많아졌던 것이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강순영은 말하였다.

『그때 저는 두 자식의 어머니로서 회사의 빵공장과 봉사단 위들의 크고작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사장의 임무를 파연 내가 감당해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였습니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는 사장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힘을 내오. 당신은 얼마든지 회사를 잘 끌고나갈 수 있소.』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고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자

기를 외국에서 치료받도록 해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고 생의 마지막까지 헌신하여온 남편이였다. 잠시나마 약해졌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는 남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애국의 길에 자기의 뚜렷한 흔적을 새겨갈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런가 하면 그 자신이 직접 상점들과 주민들 속에 자주 들어가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 등을 알아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떤 때에는 사무실에서 식료품과 관련된 기술문헌들을 깊이 파고들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들을

새 제품개발을 위해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그의 고심참담한 사색과 노력이 있어 빵만 전문으로 생산하던 공장이 오늘은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을 그흔히 갖추어놓고 빵은 물론 파자, 면국대, 닭발쪽, 탄산단물을 비롯하여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여 상업봉사부문들에 내보내게 되였다. 그 나날 공장은 제품의 가치수를 근 100가지로 늘이면서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가족과 함께 로라스케트장에서



한 일을 찾아하고 있다.

안변청년발전소와 청류다리(2단계), 금릉2동굴건설을 비롯한 건설장들에 대한 지원파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으로 훌려보낸 20여년.

그 나날 그가 조국을 위해 걸은 길, 바친 지성은 그 얼마나 모른다. 그것은 결코 돈이 많거나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였다. 나라가 부강해야 자기들의 행복한 삶도 있다는 것을 그의 가정은 지나온 생활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오늘은 그와 함께 그의 자식들이 애국의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손목에서 변함없이 시간을 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가정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신의 길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찾는 강순영의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속담 (절박성)

- 목구멍이 포도청

낡은 사회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 포도청에 불잡혀갈 그런 하지 못할 일까지도 하지 않을수 없음을 이르던 말.

* 포도청 - 봉건사회에서: 『범죄자』를 잡아들여 다스리던 판청.

-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팬다

어떤 일에 가장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됨을 이르는 말.

- 접시물에라도 빠져죽고싶을 지경

접시에 담은 물에 조차 빠져죽고싶을 지경으로 처지가 옹색하고 어찌할바를 모르게 절박함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짧은 밤에 긴 노래 부르랴

바쁜 시간에 어찌 그리 질질 끄느냐는 뜻으로 일을 빨리 끝내야 함을 이르는 말.

고향소식

대규모공업기지로 전변된 순천



질좋은 아크릴계칠감들이 생산된다.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에서



생산의 동음 높이 울리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평안남도 순천시는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살고있는 한영순동포의 고향이다. 언제인가 그는 우리에게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부모의 등에 업혀 순천을 떠났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면 늘 그곳 물맛이 특별히 좋았다는 말부터 꺼내곤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고향인 순천땅을 떠난 동포가 산천경개가 아름답고 물맛이 좋은 추억만을 더듬었지만 오늘의 순천시는 조국의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뜻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공업기지로 전변되었다.

해외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차를 달려 순천시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순천시인민위원회 사무장 박종운은 《기자선생들도 아다실이 순천에는 화학, 세멘트, 석탄 등 대규모공업기지들이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전력, 기계, 제약, 신발, 식료공업에 이바지하는 공장들도 있는데 어느곳부터 먼저 모셔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호방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새로 꾸린 순천화학련합기업소로 먼저 향하였다.

기업소의 한 일군은 공장의 칠감 제품들은 모두 세계적수준이라고 하면서 들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장성에 힘을 넣고 있다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만의 독점기술로 되어있는 폭발구역방지조종체계를 자기의 설정에 맞게 확립하고 그 안전성이 100% 담보된 조건에서 칠감제품생산을 내밀고 있음을 아니라 토양개량 및 수분보충제인 테라코템과 틴세균비료와 같이 그 효과성과 실용성이 높은 화학제품들도 꽝꽝 생산해내고 있었다.

기업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

학이 자리잡고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주체39(1950). 6. 25-주체42(1953). 7. 27.]시기 불뿜는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고향에 세워진 대학에서는 화학공업기지를 가까이 두고 있는 조건에 맞게 학습과 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학생들의 학과학습을 실り있게 짜고들고 있었다.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대규모세멘트생산기지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위용도 볼만하였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동자 김주혁은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준데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해 갈 그들의 불라는 열의를 보여주는듯 소성로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종운사무장은 생산기업소들과 지방산업공장을 비롯하여 순천땅의 숨결을 더해주는 곳이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이라고 하며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가 탄광에 도착하니 마침 석탄을싣고 떠나는 화물렬차가 직동역에서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었다.

석탄을 그득그득 실은 차량이 시야에서 멀리 사라져서야 직동역을 나선 우리는 탄광구내에서 속보판에 나붙은 속보를 통해 9개파 11개이 하루석탄생산계획을 언제나 넘쳐 수행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9개의 탄부들을 만나보기 위해 지하막장으로 들어갔다. 쟁장 한승찬은 기본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예비탄발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을 이용하여 생산능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지상부문에서 물질적, 로력적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니 탄부들의 생산의욕이 더 한층 높아졌다고 말하는것이었다.

탄광에서 다시 순천시내에로 돌아오는 길에 박종운(59살)사무장은 자기는 50여년전에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나라의 은덕으로 대학공부까지 하고 순천시에서 일군으로 성장하면서 이 땅이 어떻게 나라의 중요공업도시로 전변되게 되었는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전변의 력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와 합성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순천제약공장뿐만 아니라 순천구두공장, 순천기판공장 그리고 삿갓봉샘물공장 등을 돌아보는 우리에게는 박종운사무장이 이야기하였듯이 순천땅의 오늘을 안아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쳐오신 혼신의 날파 달들이 돌이켜졌다.

우리는 순천시안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구상과 냐원을 안으시고 품들여 마련해주신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세차게 울리며 밝은 래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것이라는 생각을 굳히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순천화력발전소의 저녁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 김명희 앞

54회 인사를 보낸다

조카, 어느덧 뜻깊은 한해가 다 지나갔소.
새해를 맞으며 조카와 조카의 가정에 인사를 보낸다.

이렇게 편을 들고보니 이국에 있는 조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오.

명절이면 조국에 있는 가족친척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앉군 하는데 그럴 때면 모두가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외우군 하오. 아마 조카도 우리와 다를바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카를 만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만.

돌이켜보면 조국을 떠나 순간도 못사는것이 조카가 지닌 애국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수십년전 첫 조국방문단 성원으로 평양에 왔을 때도 그렇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도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조카의 모습을 볼 때면 솔직히 나도 감동될 때가 많다. 화재로 집을 잃고도 가정의 앞일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했고 민족의 일을 지키려거든 조국에 가보아야 한다며 자식들을 앞세우고 평양을 찾았던 조카였지.

그래서인지 몇년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동포들도 나에게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조카는 아마 모를거다.

그래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자식들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해주

군 한다. 너희들도 자기 맡은 일들을 더 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이다.

조카, 우리는 모두 잘 있소. 내 나이 이제는 어른다섯이지만 아직 건강하오. 돋보기를 끼지 않고도 신문을 보고 웬간한 동자질도 다 내 손으로 하고있지.

나와 같이 살고있는 맏딸 순희와 사위도 다 잘 있다. 단천시 의약품관리소에서 일하는 순희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잘한다고 직장에서랑 칭찬한다오. 사위도 년로보장을 받았지만 그냥 앉아있을수 없다며 산림조성사업에 열성이다.

손녀 수련이와 손녀사위도 잘 있다. 그애들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증손자 송남이가 내게는 큰 기쁨으로 되는구나. 얼마나 호기심 많고 장난이 세찬지 컴퓨터, 사진기 등 눈에 보이는것은 다 관심을 가지고 뜯어보는데 그녀석은 앞으로 자기는 이름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오. 처음에는 그 말을 장난이 심한 애의 말로만 들었는데 글쎄 송남이가 지난해 평양에서 있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어린이들의 경연에서 2등을 하여 표창장까지 타지 않았겠니. 텔레비죤에서 나오는 송남이를 보고 온 집안과 동네가 떠들썩했다. 마을사람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손자가 똑똑하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내 어깨가 절로 올라갔드랬소.

참, 손주 상철이가 생각나나? 그 애 가정에서는 이번에 딸을 보았다. 지금 9달인데 신통히도 제 아버지를 닮아 얼마나 끔찍 생겼는지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정의 행복이 넘칠수록 조카생각이 더 나누만.

조카, 하고싶은 말은 많고많은데 다 쓸수 없구만.

나와 우리 가정이 조카에게 하고싶은 부탁은 하나 그것은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고 온 가정이 행복하라는것이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만 편을 놓겠다.

함경남도 단천시 복천동 73인민반 주현월

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새해 주체106(2017)년이 밝아왔다.

뜻깊은 새해를 맞는 이 시각 거례의 가슴속에 고쾌치는것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례가 언제면 한자리에 모여앉을가 하는 일념일것이다.

그 일념을 안고 올해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거례의 억센 기상을 그려보느라 지난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던 나날들이 다시금 돌이켜진다.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으로 주체105(2016)년의 첫문을 연 조국은 과학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진하며 민족의 존엄을 떨치였다. 그리고 온 거례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도 적극 벌리였다.

그러나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6. 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개성에서 진행 하려던 민족공동행사와 조국해방 71돐을 계기로 서울에서 진행하려던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협력회의, 8. 15민족공동행사,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은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금처럼 북남사이의 반목과 질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전쟁기운은 날로 높아가게 될것이며 이것은 침략적인

미국에 간섭과 전횡의 구실만을 주게 될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의 주인인 조선민족이 단합하면 조선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이기에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통일위업수행을 위한 길에 애국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온 거례는 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려는 의지를 안고 새해 주체106(2017)년에도 변함없이 불변의 조국통일3대현장을 높이 들고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 우리 민족끼리를 칠저히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3대현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사상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어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상식

붉은바지농민군

9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신라의 통치배들은 국도의 사치와 영화를 누리면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그 어느때보다도 혹독하게 하였다. 더는 참을수 없었던 농민들은 도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봉건지배층을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이름난 농민군이 붉은바지농민군이였다. 896년에 서남부에서 일어났는데 폭동당시 그들은 단결의 표시로서 모두 붉은 바지를 입었다. 이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붉은바지농민군』이라고 불렀다.

붉은바지농민군은 여러 군, 현들을 습격하여 관리들과 토호들을 소탕하였으며 창고들을 열어 곡식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기도 하고 대나무창이나 괭이, 낫 등을 무기로 삼고 싸웠다.

이 농민군은 오늘의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의 남부 군, 현들을 휩쓸면서 동쪽으로 계속 진격하여 경주의 서부 모량리까지 진출하였다.

붉은바지농민군은 자체의 약점과 판군의 반격으로 수도의 중앙집권관료배들에게 직접 타격은 주지 못하였으나 다른 농민군들과 달리 중앙집권관료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계급투쟁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 * *

민족자주가 조국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례가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라면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요인이다.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온 거례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이루어나야 한다.

통일 문제 해결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조선민족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인도 다름 아닌 조선민족이다. 따라서 해내외의 온 거례는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면서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온 거례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준 것이 바로 6. 15 공동선언에 의해 제시되고 10. 4 선언에 의해 다시금 확인된 애국의 대명제 우리 민족끼리이다. 이 대명제는 조국통일의 진로를 애국의 뜻이 차넘치는 단 여섯 글자에 명쾌하게 담아낸 것으로 하여 대번에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심금을 털어 잡았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온 거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애국리념이다.

여기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 자주적 민족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거례의 강렬한 지향과 면원이 어려있으며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려는 드림없는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해내외의 온 거례가 조국통일 운동을 자주와 단합의 궤도를 따라 한치의 탈선도 없이 곧바로 전진시킬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원동력이다.

상식

사 6 신 과 생 6 신

왕자리를 탑내오던 수양대군(세조)이 12살 난 단종이 왕(1453년-1455년)으로 되자 그를 몰아내고 왕자리를 빼앗아냈다. 세종[통치년 한(1419년-1450년)]이 살아있을 때 그로부터 어린 왕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은 성삼문을 비롯한 일부 관리들은 어느 한 연회때에 세조와 그의 지지자들을 없애버리고 단종을 다

시 왕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질의 밀고로 이 계획은 사전에 드러나 모두 잡히고 말았다.

성삼문, 박팽년, 리개, 유옹부, 하위지, 류성원은 구금되어 온갖 회유와 잔인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다가 죽었다.

이들을 가리켜 사6신이라고 한다.
한편 세조가 왕(1455년-1468년)

자리를 빼앗은데 대하여 극도로 분개한 6명의 관리들은 벼슬을 버리고 반항의 표시로서 폐인으로 자처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그 대표적인 물은 김시습, 남효은(권필), 원호, 리맹천, 조리 등인데 이들을 가리켜 생6신이라고 한다.

* * *

온 거례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우리 민족끼리는 6. 15 통일시대의 현실을 통해 그 위력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6. 15 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고 빛내이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이 열리지만 그것을 잃으면 민족의 운명을 통락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하고 그 요구대로 민족의 자주와 대단합을 지향해 나가는 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해내외의 온 거례가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깊이 간직하고 자주정신과 단결의 의지를 높이 발휘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나아가는 바로 여기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민족자주, 민족 단합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추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해내외의 온 거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거례를 조국통일운동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해내외의 온 거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위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해의 거족적 투쟁에서 민족이 아는 애국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 것이다.

* * *

통일을 위한 애국의 해로 빛내입시라

동포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환희와 결정으로 들끓던 주체 105(2016)년은 어느덧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조국을 위하여 또 어떤 일을 해놓을가 하며 지난해에 걸어온 길과 새해에 걸어갈 길을 생각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여러분과 함께 훌륭한 지난해가 되새겨집니다.

얼마나 환희롭고 뜨거운 지난해였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 그리고 당당한 핵강국의 민족구성원이 되었다는 환희를 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힘찬 걸음을 내짚어온 여러분입니다.

기어이 민족의 뭉친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루하자고 중국과 일본, 로씨야, 미국과 카나다 등 세계의 방방곡곡에 있는 동포들은 뜻깊은 명절들과 기념일들에 보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음악회 등을 성대히 진행하였고 부강조국건설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고 자기들의 마음을 성의껏 바쳐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때 10. 4 선언 발표 9돐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 준비위원회 성원들이 통일자전거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국인민들이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남조선파퇴폐당이 동족이 내민 화해와 단합의 손을 한사코 뿌리치고 미, 일상전들과 야합하여 전대미문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어도 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발걸음은

서 출정식을 가진 통일자전거 행진단 성원들이 《조선은 하나다》, 《통일 6. 15》, 《통일아리랑》 등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떠나 판문점에 이르렀지만 삼천리강토를 가로지른 원한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가슴저미는 분별의 고통앞에 행진단 성원들은 《통일아-》, 《통일아-》 하고 분계선너머로 훌러간 남녘땅을 바라보며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판문각앞마당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결의모임을 가지고 외세를 몰아낸 삼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온 거례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기에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결의도 그토록 뜨겁고 열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해야 할 일도 통일을 위한 길, 민족을 위한 애국의 일입니다.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릴세라 탕개를 든든히 조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 그리고 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비롯하여 뜻깊은 날들을 맞는 올해를 통일을 위한 애국의 해로 빛내이자고 말입니다.

북파남, 해외의 온 거례는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갑시다.

해외동포사업국 총장 오성호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휘황합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조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년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조국의 현실은 태양의 빛발을 떠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의 품을 떠나 청춘의 삶과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해 8월에 있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젠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여려달이 지나갔으나 대회기간 받아안았던 무한한 감격, 격동과 흥분으로 달아올랐던 저의 마음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으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결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마음쓰는 친

아버지의 심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사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청년들입니다. 그들에 비해 볼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을 위해 이렇다 하게 크게 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도 더 많고 내세우고 싶은 청년들도 많으시련만 그이께서는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을 영광의 대회장으로 불려주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회장에 들어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를 잊을수 없습니다.

자나깨나 뵙고싶던 그이를 5년전 8월 청년절경축대회에 이어 또다시 몸가까이에서 뵙는 순간 저는 눈시울을 적시고야말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대회참가자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습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제가 올리는 축기를 몸소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대회에 드리는 저의 축하토론도 정히 들어주시였으며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선참으로 박수도 쳐주시였습니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이를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저의 심장

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그리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활영장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순간 장내에 그이를 따르는 신념의 웨침인양 전체 청년대표들의 만세소리가 터져울랐습니다.

그이의 앞에서 저는 전체 재중동포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저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을 자신의 몸가까이에 세워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해주시였으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연설도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수여하신 기발파 강령적인 연설은 결코 조국청년들만이 아닌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야 할 기치이고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세워주시는 백두산청년강국의 해외청년답게 조국의 청년들과 마음도 숨결도 맞추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백두산청년강국의 력사와 전통은 굳건히 이어질것이며 그 미래는 끝없이 밝고 휘황합니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김영남

진정

지난해 8월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이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할 때였다.

전당의 규모는 물론 매관의 학술적인 구성과 컴퓨터를 비롯하여 모든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수첩에 적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장 박정일동포였다.

우리의 호기심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에 대하여 더 많이, 더 깊이 알고싶을뿐입니다.』

실지 그는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건축물 하나, 설명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고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중국 길림성 룽정시에서 태여난 그는 부모들의 각별한 교양 속에 성장하였다.

조국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 …

이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들 하던 당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는 이해 할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부문에서 일할 때에도 그의 심중에는 고된 농사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의 여생을 편안히 해드릴 생각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후 동포조직에 몸을 적시면서 비로소 그는 조국에 대하여 조금씩 알기 시작하였다.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련승,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성과 등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은 그의 마음을 조국으로 이끌었다.

주체100(2011)년에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아보고서야 그는 자기의 생각이 깊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번에 또다시 조국을 찾은 그였다.

만경대고향집이며 조국해방



박정일

전쟁승리기념관, 청년운동사적관, 조국청년들파의 상봉모임, 금강산관광…

보고 듣는 모든것이 놀랍기만 하고 감동적이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혈육처럼 여겨지고 가는 곳마다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곳, 같은 민족이라면 한품에 안아주는 조국이 눈물겹도록 정겹고 어디 가나 고향처럼 여겨졌다.

진정 조국은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있건 정을 부어주고 존엄을 지켜주며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품이라는것을 그는 마음속에 새기였다.

그리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

나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조국을 위한 더 좋은 일을 할 결심을 다지였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는 동포조직과 조국을 위한 길에 나섰다. 평소에 말이 없고 잘 나서려 하지 않는 그였지만 새 세대 동포청년들을 조직에 끌어세우고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선참으로 나서군 하였다.

한명의 동포청년을 위해 먼 길도 걸었고 부강조국건설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가정에 저축하였던 자금까지 주저없이 내놓았으며 가치있는 도서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조국부터 먼저 생각하였다.

그런 그였기에 동생도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내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결코 그에게 시간이 많거나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농촌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안해와 자식을 돌보고 생업에 바쁜 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조국이 소중히 자리잡고있기 때문이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조선민족의 퍼즐을 타고났다고 하여 다 조선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잘 알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의 진정을 바쳐갈 때 당당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사기자 변진혁

장엄한 청년강국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번에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지금도 그 날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뜨거워 움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 되었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혜 불야회의 환희는 지금도 나의 가슴속에 끓어번지고있다. 자기령도자를 옹위하여 혜불처럼 불타는 500만청춘들의 심장이 그대로 충천하는 빛과 열로, 우뢰 같은 함성으로 터져오르는 장엄 한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혜불야회에서 청년들이 추켜 든 혜불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이 안아온 승리의 불길이며 대를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청년 강국주인공들의 신념과 맹세의 불길이라고.

정말이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청년 강국의 모습은 나에게도 그 대 오의 한 성원이라는 궁지를 안겨주었고 그 궁지로 하여 가슴이 막 부풀어오르고 힘이 부쩍 솟구쳐올랐다.

나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나아간 혜불대하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어 우리 부모들이 그리하였던것처럼 충실 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꾹꾹이 이어나감으로써 주체적해외 교포운동의 미래를 억세게 떠메고나가겠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부원 강승렬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공장



나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고 매우 감동되었다. 공장은 생산건물도 건물이지만 생산설비 또한 아주 훌륭하다. 공장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무인화, 무

균화, 무진화되어 영양학적으로 보나 위생학적으로도 담보된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그래서 설비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은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생산한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콩우유생산설비가 매우 현대적이고 생산된 제품의 수준이 높다는것이 알리였는데 이

런 설비에서 생산된 질좋은 콩우유를 매일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니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렇듯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고 한다. 이것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공장터전까지 잡아주시고 공장을 종합적인 어린이식료품생산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빛내여가시려는 그이의 높으신 뜻이 어려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식료품생산기지가 많고많지만 이렇듯 대를 이어 령도자들이 후대들에게 제일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안겨주기 위해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준 공장,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공장은 없다고 본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지구협회 박일남

온 겨례가 힘을 합쳐 《영차!》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의 첫 《민족의 향기》란을 펼치니 언제나 마음을 겁게 우리 《금수강산》잡지를 보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통일된 래일을 그려보군한다고 하던 동포여러분의 정다운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주체106(2017)년의 첫호 《민족의 향기》란에 우리는 민족체육가운데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의 하나인 바줄당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줄당기기는 여러 사람이 두편으로 나뉘여 긴 바줄의 끝쪽을 갈라 잡고 힘껏 당겨 자기편쪽으로 상대편을 끌어오는것을 겨루는 집단놀이입니다.

바줄당기기를 옛 기록들에서는 《색전》, 《갈전》, 《조리회》라고 하였으며 전라도일대에서는 《고싸움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바줄당기기경기는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들에서 동네나 부락 등을 단위로 하여 널리 진행되군 하였습니다.

년중에서도 정월대보름날의 바줄당기기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새해 정초에 어린이들의 경기로 시작된 바줄당기기는 대보름에 와서 마을 대 마을, 지역 대 지역의 어른들의 경기로 진행되였습니다.

그때의 바줄당기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직경이 50~60cm되는 굵은 바줄을 1m정도의 간격을 두고 직경 9~10cm, 길이 2~3m의 가는 줄 즉 동줄을 연결하여 이 줄을

잡고 당기였습니다. 줄은 매개부락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며 경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그 줄을 떼우게 되어있었습니다.

굵은 바줄은 직경이 20~30cm 되는 줄 3~4개를 합쳐서 그우를 새끼줄이나 짚줄로 여러겹 감은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원줄의 직경은 50~60cm나 되었고 길이는 300~400m에 이르렀습니다.

두편의 대렬앞에는 각각 편장 또는 독전장으로 불리우는 지휘자들이 자기편 사람들을 지휘하고 기세를 둑구어주었습니다.

경기장의 중앙에는 높다랗게 다락을 매고 그우에 총심판이 올라가 경기과정을 주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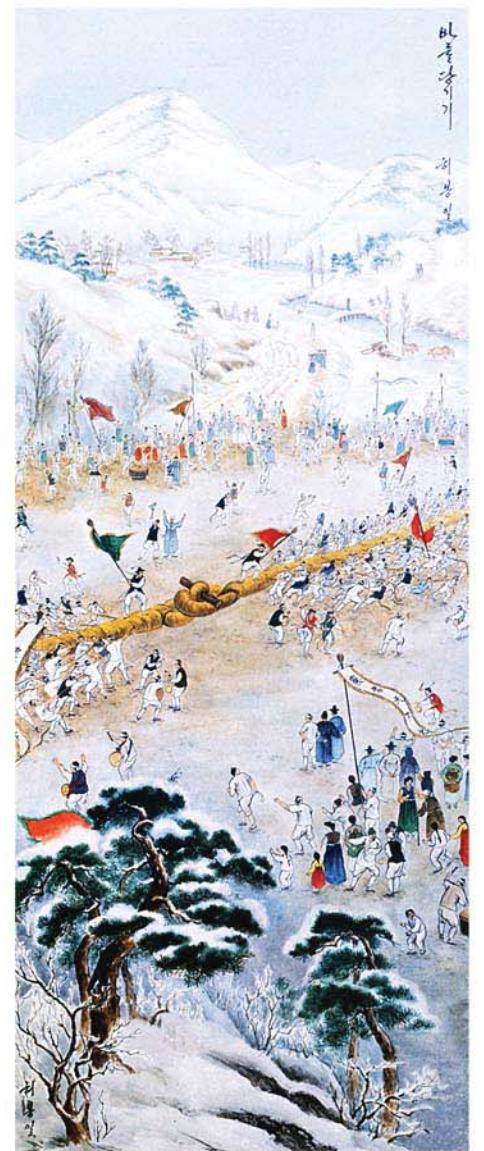
오늘날 바줄당기기는 현대적미감에 맞게 그 진행형식과 방법들이 고쳐져 언제 어디서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체육종목의 하나로 발전되어 온 몸의 힘을 키우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는데 이바지되고있습니다.

바줄당기기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고나니 몇해 전 화창한 봄날, 대성산성 남문앞에서의 바줄당기경기가 떠오릅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친선야유회에서는 바줄당기경기가 제일 인기를 모았습니다.

《영차!, 영차!》 바줄당기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온몸의 힘을 모아 줄을 당기며 단합된 힘으로 상대팀을 한발자국한발자국 끌어당기였습니다. 선수들 못지 않게 응원자들도 자기편선수들과 꼭같이 구령을 치면서 대성산이 떠나갈듯이 열을 올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총련



우리 민족의 고대글자-신지글자

슬기롭고 재능있는 조선 민족은 벌써 고대시기부터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신지글자이다.

신지글자는 민족의 첫 국가인 단군조선시기에 신지라는 사람이 만든 민족 고유의 고대글자이다.

신지는 단군조선성립 초기 임금의 명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 마가라는 높은 벼슬을 가진 고위급중앙관료였다. 력사책 『규원사화』에서는 그가

사냥을 하다가 사슴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지글자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인 글자가 아니라 조선에서 발생발전한 민족의 고유한 글자로서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의 옛 력사책들이 『삼국유사』와 『룡비어천가』, 『평양지』, 『녕변지』 등에서 도 신지글자가 단군조선시기부터 고조선에서 쓰인 글자이라고 한결같이 쓰고 있다.

력사책들이 『평양지』에서는 법수교에 옛비가 있었는데 그 글자가 언문(훈민정음)도 아니고 범자(싼스크리트글자)도 아니여서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이 단군때의 신지글자라고 하였으며 『녕변지』에서는 신라시기 사람인 최치원이

신지전으로 된 단군천부경을 보고 읊겨서 새겼던 것이 후세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신지글자라고 하는 16개의 글자를 전하였다.

고조선시기와 그 이후 시기의 여러 유물들에서도 신지글자와 같은 모양의 글자들이 새겨진것을 찾아볼수 있다.

력사기록들과 유물들에서 발견된 신지글자와 같거나 비슷한 류형의 글자자료들은 신지글자가 단군조선시기에 창제되어 우리 나라 고대글자로 널리 써야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신지글자는 남아있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하여 그 수와 체계, 규범이 아직 다 밝혀져있지 못하고 있으나 글자짜임의 특성으로 보아 소리글자, 마디글자로서 글줄은 내려쓰게 되여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신지글자는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쓴 고대글자로서 조선민족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산이다.

신지글자는 그 글자모양이 이웃한 다른 나라 글자들인 중국의 한자와도 구별되고 몽골글자나 고대인디아의 범자, 마디글자인 일본의 가나글자와도 구별되는 독창적인 글자이다.

고대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창제하여 서사생활에 리용하여온 슬기로운 조선민족이기에 중세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는 『훈민정음』과 같은 뛰여난 조선글자를 창제할수 있었던것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원시생활이 진행되고 있던 5 000여년전에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창조된 고대글자-신지글자는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주는 귀중한 재부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전경일

한사람이 식당을 차렸다.
어느날 한 운전사가 찾아와서 『주인님, 물만두 한그릇에 얼마요?』 하고 물었다.

10전이라는 주인의 말에 그는 국물을 얼마인가고 물었다. 국물을 돈을 받지 않는다고 주인이 말하자 운전사는 국물 한사발을 달라고 하여 마시고는 입을 쑥 닦고 떠나가버렸다.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다음에 그가 오면 단단히 꿀려주리라고 생각하였다.

유모아

물 만 두 값

이튿날 운전사가 또 찾아와서 물만두를 얼마 하는가고 물었다.
주인은 대답하였다.
『10전이요.』
그러자 운전사는 국물을 얼마인가고 다시 물었다.
『15전이요.』라고 주인이 대답하

자 그는 물만두 한사발을 달라는것이였다.

주인은 속으로 웃으며 좋아했다.
운전사는 물만두사발을 받아들고 저가락으로 만두만 건저먹고 남은 국물그릇을 내밀며 『이 국물은 되물리는 데 나에게 5전을 돌려주어야겠소.』라고 말하였다.

주인은 『아!』 하고 입만 쩍 벌리고는 아무말도 못하였다.

* * *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2)

- 선죽교 -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는 우리의 취재길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선죽교로 향하였습니다.

선죽교는 개성시 선죽동의 로계천에 있습니다.

선죽교는 고려시기의 돌다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선죽교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선죽교밑으로 옛날에 흐르던 개울을 그대로 만들고 땅쪽을 돌로 잘 쌓아 깨끗하게 정리하며 그 주변에 나무도 보기 좋게 더 심고 꽃밭도 만

들어 늘 근로자들이 와서 고적도 보면서 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선죽교의 유래에 대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할데 대한 교시도 주시였습니다.

『고려사』 최충헌전에 선지교란 이름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1216년이전에 이미 이다리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선죽교(←)와 표충비(↑)

1780년 정몽주의 후손 정호인이 개성류수로 있으면서 선죽교우에 돌란간을 돌려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새로 돌다리를 놓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리옆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명필인 석봉 한호가 쓴 『선죽교』라는 비석과 1641년에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성인비(읍비), 1796년과 1824년에 세운 록사비가 있으며 다리의 서편에는 표충비가 있습니다.

선죽교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돌다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의 하나로서 당시의 건축술과 돌다루기 기술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됩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조국의 천연기념물 (1)



대성산두총나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조국에는 수많은 천연기념물이 정해져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란 특이한 식물과 동물, 진귀한 자연물들 가운데서 학술적으로나 풍치상으로 의의있는것들을 국가가 설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을 보존관리할데 대하여』라는 국가적조치에 따라 조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새로운 천연기념물들을 적극 찾아내고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평양시에는 대성산지구와 통악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에 10

여개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대성산지구에서 자라고있는 대성산목란, 대성산미선나무, 대성산두총나무, 대성산뚝향나무, 대성산향오동나무, 대성산참등나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대성산목란은 꽃이 희고 정갈하며 나무가 건강한 맛이 있어서 마치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엿볼수 있게 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2. 9m, 뿌리목

대성산향오동나무



둘레는 16cm이며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2. 7m, 북남으로 3. 2m입니다.

대성산미선나무는 대성구역 통북동에서 심어키우던 20년 자란 나무를 주체54(1965)년 중앙식물원에 옮겨심은것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1. 6m, 뿌리목 직경은 6cm,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2. 5m, 북남으로 3. 1m입니다. 이 나무는 물푸레나무파의 계통과 분류, 분포를 연구하는

데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산두총나무는 중앙식물원의 약용식물구에서 자라고있는 두그루의 수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주체52(1963)년에 5년 생 어린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대성산두총나무는 현재 우리 나라 북반부지역의 두총나무들의 조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큰 나무의 높이는 13m정도, 뿌리목둘레는 1. 8m, 가슴높이둘레는 1. 6m, 나무갓너비는 10m정도이며 작은 나무의 높이는 12m, 뿌리

상식

식물성기름을 1년이상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식물성기름을 오래 저장하면 산도가 높아져 불쾌한 맛이 날뿐아니라 소화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산도의 세기는 저장시간과 관련된다.

보관기간이 1년이상된 식물성기름의 산도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 * *



대성산참등나무



목둘레는 1. 4m, 나무갓너비는 9. 5m정도입니다.

두총나무는 약재로 널리 쓰이고있습니다.

대성산향오동나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52(1963)년 5월 중앙식물원을 현지지도하시다가 개오동으로 불리워오던 나무이름을 꽃도 좋고 향기롭다고 하시면서 『향오동』으로 고쳐 지어주시였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지는 넓은잎키나무로서 높이가 8m정도이고 뿌리둘레는 0. 95m정도이며 가슴높이둘레는 0. 8m입니다.

나무는 원림용으로 좋으며 나무껍질과 씨는 귀중한 약재로 쓰입니다.

대성산뚝향나무는 중앙식물원의 바늘잎나무구역 안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본래 1600년경부터 남포에서 자라던것인데 주체48(1959)년 중앙식물원에 옮겨심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3. 2m정도이며 나무갓너비는 14m이며 그 둘레는 41m나 됩니다.

나무의 줄기는 0. 5m높이에서 세갈래로 갈라지면서 수평으로 뻗었으며 끝부분은 점차 아래로 드리우고 수많은 잔가지들이 나와 나무갓은 방석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형태가 보기 좋을 뿐아니라 정유를 분비하므로 향

기롭습니다.

대성산뚝향나무는 그 나이가 수백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있는 뚝향나무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대성산참등나무는 중앙식물원의 걸씨식물분류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참등나무들 가운데서 제일 큰 대성산참등나무는 꽃이 매우 곱습니다. 일명 등덩굴이라고도 부르는 참등나무의 잎은 벼들잎같이 생긴 쪽잎으로 된 깃모양의 겹잎입니다.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습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대성산뚝향나무

민족자주정신과 조국통일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필수적 요구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 현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 위업의 본성적 요구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의 혁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기 인민을 믿고 자기 인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와 영광만을 이룩해온 혁사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한 민족자주정신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대정치 풍파와 겹쌓인 난관속에서도 조선혁명과 통일운동은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올 수 있었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6·15 통일시대만 보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외세의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혁사와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 없이 파시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그러자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과 남은 하나의 편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야 할 한민족이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뛰니뛰니해도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제 집안문제는 응당 주인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의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조선민족이다. 더우기 조선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질 때에만이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 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조선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 수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친미사대적 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추종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수치스러운 외세공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과거 일제의 원자탄개발계획의 진상 (2)

조선에서 감행된 비밀핵개발계획 『NZ프로젝트』

원자무기개발을 위하여 일본 해군이 추진하여 왔던 『F호연구』와 그 이후의 『태양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곳은 당시 일제의 군사적 통치 밀에 있던 조선의 홍남이었다.

홍남에는 일본함대의 지부가 있었고 당시 노구찌와 같은 독점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전기, 화학공업을 중추로 하는 군수공업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핵무기개발에서 가장 절실한 우라늄의 공급원천지가 있었으며 이곳에서 핵폭발시험을 진행하면 그 피해로부터 일본을 보호하는데도 매우 유리하였다.

이러한 속심 밀에 홍남의 지대적 유리성에 눈독을 들인 아라가쓰연구집단은 초기부터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홍남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노구찌와 만나 원자탄개발계획을 토의하였다.

그후 아라가쓰연구집단의 일원으로 된 교도제국대학 지질학 교수였던 다쿠보 지쓰다로 박사의 제안에 따라 일본해군과 아라가쓰는 조선에서의 원자탄개발을 암호명 『NZ프로젝트』로 명명하였다.

『NZ프로젝트』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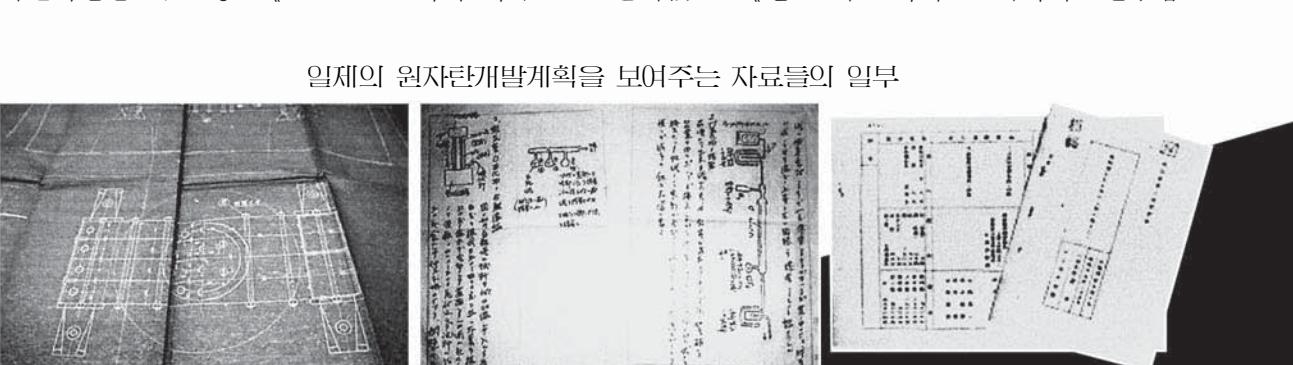
『NZ프로젝트』, 이것은 일본 해군의 『F호연구』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홍남의 해군연료 공장, 화약공장과 주울을 비롯한 여러 곳의 우라늄광산을 련결하는 일체화된 원자탄개발계획이었다.

이러한 원자탄개발계획을 세운 일제는 그 무기개발을 위한 공장의 이름도 『아연공장』(아연의 화학원소기호 Zn, 거꾸로 읽으면 NZ)이라는 암호로 부르고 그 비밀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에 대해 2015년 5월 4일 부 남조선인터넷홈페이지 『자주민보』는 『일제는 홍남지구에 지하화된 토리움추출시설을 건설하고 1944년부터 그곳에서 일본해군제독 하세가와 히데오의 지휘 밑에 약 300명의 일본 과학자들이 〈F-NZ〉의 명칭 하에 핵물질을 개발하였다. …』라고 폭로하였다.

홍남에서의 일제의 원자탄개발은 1944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련속적인 폐배로 수세에 빠졌던 일제에게 있어서 원자탄개발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것이었다. 당시 노구찌의 후임으로 들어앉은 『일

제의 원자탄개발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들의 일부



본질소』 사장 에나미와 사이또 중좌는 부리나케 비행기를 태고 홍남에 날아들어 공장관리들에게 『현재 정황은 가미가제라도 불지 않는 한 일본이 이길 승산은 없다. 단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 무기이다. 일본의 운명을 지닌 가장 중대한 일이므로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이루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NZ』 공사를 1개월 안으로 진행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홍남지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투입되는 『NZ선풍』이 일어났다.

당시 일제는 조선적으로 인력을 모으다 못해 형무소의 수인들까지 동원하는 한편 인부들에게 각성제까지 주입하면서 일을 시키였다. 하여 일제는 초원심분리기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고 1945년 8월을 목표로 일본기업에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대형사이클로트론건설도 진척시킬 수 있었다.

그런 속에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2차에 걸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미국의 원자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도시가 황폐화되었다. 하지만 아라가쓰연구집단

의 원자탄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일제는 홍남지구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던 《NZ프로젝트》를 비롯한 모든 비밀계획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한편 발악적으로 시험용으로 제작했던 원자탄에 대한 폭파시험을 감행하였다.

시험은 1945년 8월 12일 새벽 홍남앞바다에서 진행되었다. 그때 일제가 감행한 시험 원자탄의 폭파시험은 나치스도 이탈란드로부터 넘겨받은 농축도가 낮은 우라니움 235를 다 공성고폭화약과 액체산소혼합물을 폭발시켜 높은 열과 압력을 얻어 림계질량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제는 저들의 죄 행을 감추기 위하여 홍남지구에서 진행하던 핵관련시설들과 장비, 물자들을 모두 폭파처리하였으며 기술문건들은 은닉하였다. 그때 일제는 홍남항에 쌓여있던 모나즈광석 2 000t을 그대로 바다에 처넣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 모나즈광석을 처넣을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일제는 자기들의 범죄의 증거인멸과 함께 조선민족에게 방사능피해를 주어 저들의 패전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목적밑에 의도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원자탄개발을 위해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랙탈하였고 핵시험과 모나즈광석처리를 감행하여 조선의 하늘과 바다를 오염시키였으며 조선민족에게 대를 이어가며 후파를 미칠 핵방사능의 피해를 준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본사기자

시궁창에 처박힌 꼭두각시 박근혜

지난해 말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만을 들씌우던 박근혜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었다.

나라아닌 《나라》에서 그래도 무슨 《대통령》이랍시고 너덜거리던 역도년의 배후에서 항간의 돌활이무당 최순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영역을 주물러댄 특대형권력추문사건이 공개되어 남조선사회전체가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마처럼 끊어 번졌던 것이다.

박근혜의 추문사건이 터지자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학계는 두말할것도 없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지어 백발의 로인들과 가정부인들까지도 투쟁의 거리에 달려나와 파쑈독재에 명든 가슴을 두드리며 원한과 울분을 토로하였다. 지어 지난 시기 반정부시위

에 나서지 않던 문화계, 체육계까지 반박근혜투쟁에 떨쳐나섰으며 해외에서도 《박근혜 하야》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정권》이라면 기를 쓰고 역성을 들던 강경보수언론 《조선일보》까지도 《4. 19혁명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승만의 하야로 일단락되었다.》는 문장을 례문으로 들어 사람들을 놀래웠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과 서울시장, 충청남도 지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남조선정계의 주요인물들과 정치평론가들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범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처벌에서 뛰어나갈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민심의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발버둥치는 박근혜의 비참한 신세에 대해 외신들도 《식물 〈대통령〉이 된 박근혜》, 《박근혜가 살아남을

남조선 각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투쟁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남조선전역의 120개 대학과 1 600여개 단체들에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1 5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발족되었으며 그의 주최

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남조선 전지역에서 강력한 집회와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주간을 계기로 진행된 범국민행동의 날들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100만명, 190만명 또는 그 이상의 각 계각층 군중이 초불을 들고 떨쳐 일어났으며 서울에서는 역도년을 풍자, 조소하는 사전집회와 함께 범국민집회가 펼쳐지고 청와대포위행진에 이어 박근혜역도의 소굴을 에워싸고 역도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성난 민심은 《청와대를 포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과감히 투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지역의 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 들고일어나 《대통령퇴진》,

최순실은 박근혜가 신처럼 떠받들며 몸도 마음도 다 바쳐온 사이비목사 최태민의 딸이다. 친일분자 최태민(일제강점시기 순사)은 1970년대초 불교와 그리스도교, 천도교를 뒤섞은 그 무슨 《령세교》라는 사이비종교를 만들어내고 녀편네는 여섯번, 이름은 일곱번이나 바꾼 회세의 호색왕, 사기협잡의 왕초이다. 하기에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2007년에 본국으로 보낸 한 비밀문건에서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부정부패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이다》를 비롯한 투쟁구호들을 힘차게 합창하며 집회와 시위들을 벌리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진행된 범국민 투쟁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까지 참가하여 박근혜로 말하면 박정희가 총파 칼, 땅크로 《정권》을 잡고 18년간 장기집권했던것을 경험해보았기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청와대에서 제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박근혜를 《정권》의 자리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박근혜를 강도높이 단죄하였다.

온 남조선땅이 반박근혜투쟁, 박근혜를 《정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우기 위한 투쟁으로 용암끓어번지듯 하였다.

말그대로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대통령》멍거지를 쓰고 희롭게 놀아대다가 시궁창에 처박히여 세인앞에서 깨깨 망신을 당하였다.

최순실은 박근혜가 신처럼 떠받들며 몸도 마음도 다 바쳐온 사이비목사 최태민의 딸이다. 친일분자 최태민(일제강점시기 순사)은 1970년대초 불교와 그리스도교, 천도교를 뒤섞은 그 무슨 《령세교》라는 사이비종교를 만들어내고 녀편네는 여섯번, 이름은 일곱번이나 바꾼 회세의 호색왕, 사기협잡의 왕초이다. 하기에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는 2007년에 본국으로 보낸 한 비밀문건에서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해외동포들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였으며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박근혜가 최태민을 끼고 돌며 수많은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원성을 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데 있다.》라고,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은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직접 거래가 있었던것으로 안다.》라고 하였다. 이 모든것은 자기보다 나아가 40살이나 우인 최태민과 별의별 부정비리들을 다 저지르고 추잡한 치정관계까지 맺었던 박근혜에 대하여, 역도년이 왜 최순실을 《정신적지주》, 《모사》로 여기면서 그에게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왔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한다. 남조선의 한 학자가 평가하다싶이 미성숙된 발달, 발달장애상태의 박근혜가 《정치》를 했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말그대로 꼭두각시였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진 반박근혜투쟁은 인민을 기만우롱하는 추악한 시정배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였다. 민심을 거역하며 매국과 반역, 파쑈와 독재를 일삼던 꼭두각시 박근혜의 운명은 달리될수 없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대조선적대시정책전환은 미국자신을 위한 일

이제는 공화국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이라는것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공화국이 미국의 핵폐권에 맞설수 있는 강력한 핵타격수단을 다 갖춘 핵보유국이며 조선이 한다면 한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 있다. 이로써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새로운 전략적지위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적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있다. 이에 미국이 매우 바빠맞아 하고있다. 오바마는 집권당시 핵위협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놀음에 미친듯이 매여달리였다. 하지만 오늘날 리성있는 미국인들은 대세를 외면하는것은 시체와 바보뿐이라는 저들의 격언대로 그래도 대세를 따르자고 강하게 들고 나오고있다.

전 미국국무성 차관보 스탠리 토마스를 비롯한 미국의 전직고위관리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 주요정책연구기관들은 미행정부가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선파의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그론조를 보면 현단계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논하는것은 가치가 없다는것, 핵강국인 조선에 대한 군사적타격은 매우 한심하고 우둔하기 짹이 없는짓이라는데, 또 제재는 책략이 아니므로 조선파의 외교관계수립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것이다.

심중한 연구와 론의끌에 나온 주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과 제재는 통하지 않으며 압박과 제재는 오히려 공화국을 핵무력고도화에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하고있다.

사실 공화국이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몰아온 필연적귀결이다. 그리고 미국이 떠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감행하면서 저들스스로가 하늘로 날려보내였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통해 남조선에 있는 수많은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을 한사코 외면

하면서 공화국의 있지도 않은 《핵문제》를 조작하고 국제화하면서 《제도붕괴》만을 꾀하였다. 그 도수는 부숴정권에 이어 오바마정권에 이르기까지 더욱 높아졌으며 그로 하여 공화국의 노력들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핵전쟁위험은 더 증대되었다. 하여 공화국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면서도 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들도 그때마다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에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오바마정권 당시 미국은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전쟁연습에 직접 적용하였으며 그것이 공화국의 《제도붕괴》를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내놓고 공개하며 미쳐날뛰였다. 그런데로부터 공화국은 핵선제공격으로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국의 행동으로 하여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갈수밖에 없었다.

오늘 공화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핵강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핵무력강화는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를 작성있게 그리고 분별있게 대해야 할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집권자가 올라앉은만큼 그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은 무의미하며 제재나 압박으로 그 무엇을 바라는것은 전략이 아니라 선임자들이 걸은 길을 되풀이하는짓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리성있는 미국인들자체가 말하다싶이 자기를 위해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고화

《가야금타는 녀인》

등기당당, 등기당당...
마치도 영글진 가야금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녀인은 자기의 다리우에 가야
금을 가볍게 올려놓고 여리고 가
느다란 손가락으로 선들을 누르

고있다. 그의 앞에는 가야금타는
법을 배우려는듯 한 어린 소녀와
한 녀인이 마주앉아있다.

그림은 보다깊이 배경이 생략
되고 중심내용에 시선을 집중시
키는 구도를 잡고 그려지였다.

고화 《가야금타는 녀인》은
18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 사실
주의풍속화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남긴 신윤복(1758년-?, 자는 텁
부, 호는 해원)이 그리였다.

* * *





삼지연대기념비의 《진군》편 본사기자 최원철

항일의 나날 전격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멀적의 기세로 내달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격동적인 모습을 형상한 삼지연대기념비의 군상은 오늘 온 나라 인민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